



세종 논평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No. 242  
(2012. 1. 3)

## 남북한 신년사 비교를 통한 향후 남북관계 전망

남북 양측은 2012년도 남북관계의 향방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 1일 북한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해 2012년도 신년공동사설(이하 사설)을 내놓았고 이명박 대통령도 2일 2012년도 신년국정연설(이하 연설)을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강조하며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이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변화와 불확실성 속의 새로운 기회의 창'을 언급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안정을 위해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언급을 가급적 자제한 반면, 북한은 김정일의 유산을 떠받들고 한국과의 대결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bmoon@sejong.org

김정은은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보다는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적어도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김정일 시대의 대남전략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분석은 사설 내용에서도 지지된다. 사설은 “척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린다면 즉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게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과의 군사대결 의지를 다잡았다. 이에 덧붙여 사설은 핵무기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하게 천명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핵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사설은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김정일 추도기간에 우리정부가 민간인 조문을 불허한 일이 발미가 됐지만 근거에는 한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하여 우리 정부의 양보와 저지세를 의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말에도 북한은 김정일 조문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행태를 드러냈다. 김정일 장례절차를 마친 북한은 12월 30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리명박 역적패당파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방북한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했던 바 있다. 북한의 이중적 반응은 한국 내 친북세력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즉, 한국 내 친북세력들로 하여금 반(反)이명박 전선을 형성케 하여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인사들의 제도정치권 입성 및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에서 우리정부를 비난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친북세력의 득세를 후방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설이 5년 만에 다시 주한미군철수를 거론한 점도 이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진정성있는 태도→ 대화를 통한 상호불신 해소→ 상생공영”을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북한이 핵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안정이 최대 현안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을 민감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고심의 흔적이 배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진정성’이라는 용어가 해석하기에 따라 북한의 총체적인 태도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설은 기존의 대북원칙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여기에 화답하는 시그널을 보내올 것 같지는 않다.

더 나아가 사설은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대형도발도 불사한다는 점도 암시하고 있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여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향후 실행될 시 또 다른 군사도발 감행의 개연성을 남겨놓았다. 북한의 차후 군사도발 가능성은 신년 첫날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지난 1일 첫 단독 공식활동이자 30일 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뒤의 첫 행보로 잡은 곳이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이라는 점은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향배를 암시하고 있다. 이 탱크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북한군 전차부대다. 북한은 김정일이 1960년 8월 25일 김일성과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날을 ‘선군영도 개시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 부대 방문은 선군정치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뿐 아니라 6·25 전쟁 개전 당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는 내부결속용 메시지일 수도 있다. 요컨대 김정은 시대 초기의 북한은 한국과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내적인 권력공고화와 체제 정비에 주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이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에는 북한의 사설에서 김정일의 치적으로 평가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미묘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설은 지난해 북한이 대외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강화로 그것을 극복해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들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 및 전략적 공조가 언급되고 있다. 이 대목은 북한에게 피포위의식을 가중시켜 그들의 은둔과 폐쇄 정체성을 더욱 자극할 수도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공통분모로 작용하여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매개변수가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후자의 경우 북한이 상당한 정도로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노선을 수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사설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북한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설에서 나타난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김정은 체제가 당분간 김정일 노선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권력공고상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김정일 유호통치를 강조하며 김정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김정은은 현재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했고 국정운영 경험도 전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에 의지하며 권력공고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한동안 김정일의 노선을 따라 한국과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이어가려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은 우리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 손을 맞잡으려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정부는 선불리 대북 유화책들을 쏟아내며 북한 지배층을 달래려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판짜기를 예의주시하며 그들의 태도에 상응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강경책도 자제해야 하지만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이대통령의 연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 썰 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